

#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강경 진압에 사망자 급증

경제난 항의 시위 2주 넘게 지속…미·이스라엘 개입 가능성 거론  
인권단체 “사망자 2000명 넘을 가능성”…통신 차단 속 집계 난항

이란의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며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란 당국은 폭력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거듭 밝히는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개입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시위 15일째인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단체가 이를 전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60시간 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미국 기반 인권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시민 490명과 군·경 48명 등 모두 538명이 숨지고 1만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앞서 미

국 시사주간 타임도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최소 217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IHR 이사인 마우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란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고, 일부 지역에 신정체제 수호의 첨병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개혁 성향의 마수드 폐제시 키안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안보·국방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시위는 정당하지만 폭도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둘 수는 없다”며, 이번 사태의 배후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국민(페르시아 민족)이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시위 지지 입장장을 밝혔고, 이스라엘군은 필요 시 강력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시위대가 인터넷 차단과 강경 진압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추부트주 엘 오요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55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수백 명의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 아르헨 남부 산불 확산…“20년 내 최악 환경 비극”

1만2000㏊ 소실…방화 가능성 수사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일주일 넘게 진화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산불을 “최근 20년 내 최악의 환경 비극”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5일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알려진 추부트 북부 안데스산맥 인근에서 발생해 에푸엔과 엘 오요 등

주요 관광 도시와 국립공원 일대로 번졌다. 불길은 인접한 리오 네그로주와 네우켄주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2000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파타고니아 전역에서는 최대 3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현지를 찾은 관광객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20여 채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480여 명

과 함께 대형 소방 항공기가 투입됐지만, 강풍과 협준한 지형 탓에 상당 지역은 여전히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불길이 도로 인근까지 확산되면서 주요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당국은 별화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연성 물질의 흔적이 발견된 가운데, 부동산 개발을 노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상 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진화 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생태계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핀란드 덮친 기록적 한파…영하 40도 육박

항공편 취소에 여행객 수천 명 발 뚫여…유럽 곳곳 폭설·한파

핀란드에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덮치면서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교통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핀란드 북부 라풀란드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지면서 키릴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다.

항공편 결항으로 라풀란드를 찾은 관광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핀란드는 혹독한 겨울로 알려졌지만 이번 한파

는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이례적인 강추위로 평가된다. 핀란드 남부 지역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5~10도, 북부 라풀란드도 한겨울 평균은 영하 10~20도 수준이다. 이에 비해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은 북부 내륙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수년에 한 번 기록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은 아니다.

핀란드 기상청은 12일에도 라풀란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항공편 취소와 교통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 골든글로브 시상식서 이민 단속 항의 확산

미국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의 장으로 변했다. 배우들의 턱시도와 드레스 위에 달린 작은 배지가 미국 사회를 뒤흔든 이민 단속 논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마블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마크 라팔로를 비롯해 앤디 사이코스, 너태사 리온, 진 스마트 등 다수의 배우가 ‘비 굿(BE GOOD)’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달고 레드카펫과 무대에 올랐다.

하안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힌 ‘비 굿’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르네 굿(37)을 추모하는 문구다. 동시에 ICE의 과잉 단속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르네 굿은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막내아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킨 뒤 귀기하던 중 변을 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사건이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무리한 단속 논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온다 사이코스는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이 불량한 정부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통상 축제 분위기가 지배적인 할리우드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죽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죽!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죽!  
바로 바로 확인까지 죽!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립점 062) 511-2901~3

지역 대표 금융 기관 서광주농협